



'더 컬렉터블'을 통해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상징적인 빈티지 타임피스로 이루어진 두 번째 캡슐
컬렉션

6 월 16 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더 컬렉터블* 북과 함께
공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가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진귀한 타임피스로 이루어진 두 번째 캡슐 컬렉션을 공개합니다. 더 컬렉터블은 그랑 메종의 역사를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시계 수집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뉴팩처 탄생 190 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더 컬렉터블에서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50년간 이어진 20세기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에 매뉴팩처에서 생산했던 주요 모델을 공개하고,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직면한 워치메이킹 분야의 발전 과정과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빈티지 타임피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캡슐 컬렉션 시리즈로 선보이며, 구매도 가능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심층적이고 면밀히 검토한 컬렉션과 더불어, 예거 르쿨트르와 20세기 워치메이킹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17가지 주요 모델과 각각의 설명이 담긴 *더 컬렉터블* 북을 출간합니다. 그랑 메종의 전문가들이 각 모델의 상세 정보를 기술하고 매뉴팩처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역사적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위치가 개발될 당시의 문화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모든 위치는 이 커피테이블 북에서 다루고 있는 17개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개 시계로 구성된 두 번째 캡슐 컬렉션에는 1920 년대 듀오플랜, 초기 리베르소, 1950 년대 초반에 제작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퓨처매틱과 메모복스가 포함됩니다.

퓨처매틱은 기존의 크라운과 와인딩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은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워치이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손목 시계로 여겨졌습니다. 놀라운 혁신의 결과물인 칼리버 497 은 위치가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뒤에도 최대한 정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와인딩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 효율적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케이스백의 디스크로 시간을 설정하는 본연의 특성상 와인딩 크라운 없이 퓨처매틱의 깔끔한 대칭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957 년 첫 번째 메모복스를 만든 지 7 년만에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들은 두 가지 최첨단 기술인 알람 기능과 오토매틱 와인딩을 결합한 칼리버 815 를 탄생시켰습니다. 두 번째 캡슐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5 가지 메모복스 모델 중 두 가지 메모복스 오토매틱 캘린더 모델에 칼리버 825 가 탑재되어 있으며 3 시 방향에 날짜 디스플레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컬렉터블 타임피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의 발췌본, *더 컬렉터블* 커피테이블 북 및 각 워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새로운 송아지 가죽 소재의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피스의 오리지널 워치 박스와 보증서, 오리지널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모든 타임피스는 메종의 역사 전문가들의 심층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됩니다. 매뉴팩처의 복원 워크숍에 소속된 워치메이커들은 해당 타임피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된 복원팀은 매뉴팩처의 아카이브에서 모든 워치의 스케치는 물론 오리지널 부품의 일부 모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품이 아예 없는 경우 6,000 개에 달하는 형틀 또는 각인 기록을 활용하여 같은 부품을 원형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랑 메종은 모든 워치를 자체 제작하는 통합형 매뉴팩처를 운영 중이므로 모든 복원 과정을 인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종합적으로는 기계적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도 있지만 케이스 및 다이얼은 변형을 최소화한 원형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매입팀은 지나친 복원 작업으로 인해 시계 애호가들이 원하는 워치



본연의 유서 깊은 특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고 직후의 상태가 최대한 보존된 위치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캡슐 컬렉션은 수집가와 예거 르쿨트르 애호가들을 위해 6 월 16 일 ~ 6 월 21 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예거 르쿨트르 로데오 드라이브 부티크에서 공개됩니다. 부티크 방문객들은 구매 가능한 새롭게 복원한 위치 외에도 *더 컬렉터블* 북의 17 개 챕터를 구성하는 매뉴팩처 아카이브의 위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는 그랑 메종을 이끌어온 개척 정신을 기념하는 혁신적인 모델들입니다. 또한 스크류를 폴리싱하고 핸즈의 열처리를 통해 블루 컬러를 내는 길고 고되지만 예술 작품과도 같은 구성품이 탄생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시연하는 특별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진행하는 두 가지 공정은 수 세기 전에 제작한 위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시간을 초월한 오브제를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기 위해 매뉴팩처의 복원 워크숍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기술들 중 일부입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의 두 번째 캡슐 컬렉션은 jaeger-lecoultre.com 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프레젠테이션 기간 동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3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0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